

秋 책 읽는 풍경



책 읽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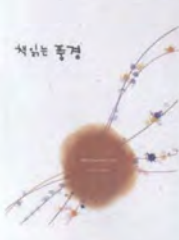
책 읽는 풍경



책 읽는 풍경



책 읽는 풍경



책 읽는 풍경

2013. 12, 제 20호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소식지

류
3.7
552
20
00



20



2013. 12. 제20호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소식지
책 읽는 풍경

펴 낸 곳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펴 낸 이 김 대 경
엮 은 이 이 혜 정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52
홈페이지 www.uilib.net
페이스북, 트위터 @ujbllib
전 화 031, 828 8662
팩 스 031, 828 4959
펴 낸 날 2013. 12
디 자 인 애드스토리



차례

열 며

- 04 소식지 20호 기념 지면 릴레이 인터뷰 : '내가 니 애미다'

이렇게 읽었다

- 08 충고할 자격도 조언할 능력도 없다 강순원
10 모두를 위한 응원가는 아니다 노미라
12 누구는 알지만 아직은 모르는 것 어성욱
14 야전과 영원 이해정

책 읽는 도시 의정부

- 16 2014년 의정부시 '올해의 책' 선포 최인환
18 '통합 도서관 & 모바일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강순원
20 가능3동 작은도서관이 달라졌어요 김윤선

문화강좌

- 22 2013년 과학·정보·어린이도서관 겨울독서교실

해외 도서관 방문기

- 24 핀란드 공공도서관을 탐하다 ② 박영애

달으며

- 26 도서관 직원들의 '스물의 책'



여
20권

소식지 20호 기념 지면 릴레이 인터뷰:

“내가 니 애미다”

2005년 가을에 첫선을 보인 의정부시 도서관 소식지 '책 읽는 풍경'이 드디어! 마침내! 20호를 맞았습니다. 계간으로 시작해 반년간으로 찾아 뵈기도 했죠? 20이라는 숫자 자체의 무게감보다 8년이라는 기간이 더 묵직하게 느껴지네요. 20권이 되도록 도서관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가장 애쓴 역대 엮은이들을 지면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한 인터뷰 보시죠.



(1, 2, 3, 4, 5, 13, 14, 15호 역음)



Q 내가 엮은 소식지가 나왔을 때 느낌은?

A 결과물이 어떠한 일단 많이 반갑고 나름 뿌듯해요. 내가 청탁해서 얻어낸 원고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한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곤 했어요.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모아 종이 위에 담아내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건네어 주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우주를 또 다른 우주와 연결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종이에 담긴 글을 통해 소통하고 또 다른 생각을 낳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 세계와 세계 사이에 내가 연결되어 있음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곤 했어요.

Q 이 점만은 차별화시키려고 생각했던 점이 있다면?

A 창간호를 만들면서 나름 테마별로 기획을 나누려 노력했어요. 당시 사서가 9명이었고, 계간지 발행이었는데, 각자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육아, 그림책, 독서치료 등)를 맡아 3개월마다 원고를 쓰게 했어요. 관련도서를 읽고 연구하여 3개월마다 결과물이 나오면, 사서는 사서대로 해당분야의 주제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 역시 사서와 함께 지식이 자라게 되어, 필자와 독자 모두 서로 교감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Q 소식지를 배부한 후 인상적인 반응이 있었다면?

A 그림책 작가전과 독서치료 관련 원고를 보고 문익가 왔던 적이 있어요. 해당 정보를 얻어서 고맙다는 타도서관의 사서와 독서회 회원이었어요. 그때가 소식지 발행 초창기라서 작은 격려의 말이었지만,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죽음에 관한 릴레이 서평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같은 아픔을 겪고 계셨던 분이 찾아와 위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K선생님,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



(17, 18, 19, 20호 엮음)

Q 이 점은 차별화시키려고 생각했던 점이 있다면?

A 도서관이 워낙 조용하고 정적인 곳이라 막상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책 뒤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의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글을 소식지에 쓰고 싶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 오는 분들처럼 책을 좋아하고 서가 사이를 거닐면 여느 애서가처럼 심장이 뛰는 점을 슬쩍 흘리고 싶은 마음이지요. 단순히 직원과 이용자가 아니라 책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은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Q 소식지를 배부한 후 인상적인 반응이 있다면?

A 한 호에서 가벼운 행사 스케치 쪽지를 채우며 제가 각 사진 밑에 서너줄 정도의 캡션을 달았습니다. 나름 유머러스하고 자조적인 내용을 썼죠. 물론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일반화하려는 의도 없이, 순전히 제 개인에 국한된 자기 비하 농담이었습니다만 소식지가 나온 후 글의 경솔함을 지적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보는 매체에 실리는 글이니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반성을 한 계기였죠.

Q 소식지도 일종의 잡지인데 엮두에 두었거나 참고했던 잡지가 있다면?

A 참고했다면 그 잡지 만든 사람들이 돌 돌고 뛰어올 겁니다. 소식지에 직접적으로 반영 안됐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봤으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우길 수는 있겠죠? :) 먼저, 6호까지 나오고 사라진 <1/n>이 생각납니다. 2009년 가을 '크리에이티브 문화 매거진'이라는 부제를 달고 '창조성'이라는 주제로 나타난 뒤, 매 호마다 '21세기 서바이벌 키트', '환승', '배움', '경험'을 이야기하다 2011년 봄 '기억'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제를 아쉬워하던 같은 해 겨울, <도미노>가 나오더군요. 역시 느슨한 동인 형태의 다양한 글쟁이들이 삐딱하고 의문스럽지만 재밌는 글을 씁니다.



(11, 12호 역임)

Q 소식지를 역으며 가장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점은?

A 소식지를 제작해 본 담당자들은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원고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직원들의 글로 채워지는 소식지인데 각자 업무가 바쁘다보니 기간 내에 글이 모아지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협박 아닌 협박 전화도 하게 되고요.^.^; 어쩔 때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소개들로 소식지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지를 제작해주는 인쇄 업체가 바뀔 때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져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렇게 정성들여 만든 결과물이 나오면 애착도 가고 엄청 뿌듯하답니다.

Q 소식지를 배부한 후 인상적인 반응이 있었다면?

A 처음으로 만든 소식지가 나왔을 때 디자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멋지게 잘나왔구나 하면서 참으로 혼자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소식지를 보신 배태랑 선배가 글씨체도 더 예쁘게, 글자크기는 좀 더 크게, 사진 배치를 조절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편집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보니 소식지에서도 가독성이 중요했는데 그 점은 미처 신경쓰지 못하고 디자인에만 치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읽기 편하게 한눈에 보기 쉽게 편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글이 있다면?

A 원고 마감일이 지났는데 들어온 원고라고는 3편 남짓이었어요. 나름 멋진 소식지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로 가득했었는데 급 위기가 찾아 온 거예요. 그 당시 거의 막내의 위치였고 선배 들한테 막 글을 내라고 하기엔 너무 소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글 좀 달라고 졸랐어요. 밥 한 끼 사주기로 하고 원고를 받았는데 4페이지 빼곡히 적힌 『경청』 독후감상문이었어요. 이거 내용이 너무 긴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글 하나가 아쉬운 마당에 고맙게 받았었지요. 대가로 맛있는 저녁을 사줬고요. 그 글을 내준 사람이 지금은 저의 남편이 되었답니다. 솔직히 글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소식지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원고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에겐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어요.^.^

이렇게 일었다

나온 지 한참 된 책을 두고 뒤늦은 설왕설래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 직후의 뜨거움이 가라앉은 뒤, 그 본질이 더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바램으로 이른바 자기계발서 열풍의 제일 위에 올릴 수 있는 책의 서평을 모았습니다. 꽤나 스펙트럼이 넓은 세 글을 읽으며 여러분 각자 생각의 지점을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20

운동리더가 청춘이다
의료우서가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엄격이니까 청춘이다
눈부시니까 청춘이다
크리니까 청춘이다

이프니까 청춘이다

· 김남도 지음 ·

인생과 마주선 젊은 그대에게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강의, 최고의 멘토
김남도 교수의 인생 강의집

시공

충고할 자격도 조언할 능력도 없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 김난도 | 쌤앤파커스 | 2010 | 320p

글 | 도서관정책팀 강순원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아무리 독한 슬럼프 속에서도라도, 여전히 너는 너야'라는 에세이로 유명한진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자기계발서다.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42편의 글을 바탕으로 재편집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 청춘에게 충고하고 조언한다.

청춘이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시기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저자는 이 어두운 시기를 버텨야 하는 청춘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고 싶다 말한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잔소리만 늘어놓는다. '혼자 놀지 말고', '이웃의 지식을 탐하라.', '스펙 쌓기 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라'고 한다. 다른 자기계발서와 차이가 전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청춘들에게 고하는 말이 고적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생활고에 쫓기는 사람들에 비하면 호사일 수 있다고 말한다. 위기의 청춘을 돌파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천방법을 제시는 전혀 없고 당신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고 한다. 문제제시와 해결방법에 논리가 결여되어 독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조언할 만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저자는 고시 준비를 실패하고 유학을 떠나 학위를 받은 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고시 준비 포기를 바닥이라고 했고, 그 바닥 다음 올라선 곳이 대학교수였다. 그는 "떨어져라,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바닥은 현재 청춘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 시대의 진짜 바닥으로 떨어질 청춘들은 다시 올라설 수 있을까. 올라선들 투자를 해서 저자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자의 삶과 책의 내용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빙빙 겹돌고만 있다.

책 내용 중간 중간 삽입된 "나에게 쓴 편지"는 젊은 시절 자신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글을 그대로 실어 놓은 코너인데, 그나마 있던 논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목이다. 거기에 책의 맥락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억지로 감정이입하려 한다. 이렇듯 논리와 진정성이 결여된 조언과 충고는 320쪽이라는 두꺼운 종이바다에 표류하고 만다. 저자가 현장에서 소통한 청춘들과 진정으로 어울리고 진심으로 표현했다면 이런 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일었다

모두를 위한 응원가는 아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 김난도 | 쌤앤파커스 | 2010

글 | 어린이도서관팀 노미라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휘청거리던 나의 지난 청춘은 회색빛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던 그 시절, 고민을 함께 할 멘토가 있었다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의 학생들은 내가 바라던 걸 가졌다. 그들에게는 준비된 멘토가 곁에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난도, 그는 젊은 지성들과 가장 많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교수이다.

김난도는 전공인 법학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고시를 준비했으나 번번이 낙방하고 만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고시를 포기하고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전공의 변경은 현재의 그를 만드는 큰 도전이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 그였기에 학생의 편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아닐까.

지금의 청년들은 바쁘다.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의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모든 스펙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스펙 쌓기는 돈과 시간의 낭비다. 문제는 이 낭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소모되어 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감정적으로도 소모 되는 것이다.

이 청춘의 난국을 김난도가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청춘이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님을 창의적인 표현으로 용기를 준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시계에 비유한 대목을 보면 24세는 아침 7시 12분이란단. 24시간은 1,440분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80년으로 나누면 18분이다. 1년에 18분씩, 10년에 3시간씩 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24세는 아침 7시 12분이라는 거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자책하기에 이른 시간임에 틀림없다. 내 나이 마흔은 정오, 점심을 먹으러 가야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인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청춘들을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늦은 때는 없다며 격려하는 란도생의 말이 마음에 와 닿지만 쉽게 이 책을 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선택받은 청춘들을 위한 책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저자의 시선은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에게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진부한 내용도 많다. '신문을 읽어라', '글쓰기를 연마해라', '고시에 올인 하지마라' 등 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은 명문대 학생들에게도 아주 조금 도움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만인의 멘토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조차 없는 대학생을 설득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빚더미에 올라갔고 이태백, 88만원 세대라는 딱지가 붙는 대다수의 청춘들은 과연 이 책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을까. 대학생이 아닌 청춘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고려했을까. 아파하는 청춘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책을 기다리는 것은 무리일까.

저자는 힘들어하는 청춘 모두를 아들로 생각하며 이 글들을 썼다고 한다. 독창적인 비유와 표현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 등을 보면 이 책은 읽어볼만 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아픔이 치유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일었다

누구나 알지만 아직은 모르는 것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 쌤앤파커스 | 2010

글 | 어린이도서관팀 여성옥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는 청춘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 김난도는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과정을 보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꿈꿨을 만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생생활을 거친 후 현재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다. 자신의 지난 인생과 제자들의 고민 해결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써내려 갔다.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란 생각에 책을 읽는 중간 중간 그냥 덮어두려고도 했지만 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은 후, 나의 태도는 달라졌다. 작가의 진심이 느껴지면서 이 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살펴보면 작가의 진심은 책 구석구석 남아 있었다. 작가는 시계, 밧줄, 일기, 신문, 퍼즐, 나침반, 사다리, 외줄로 스토리텔링한다. 정말 자기계발서 다운 식상한 소재들이다. 이를 통해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리라는 상상을 할 수 있고 또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책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 책이 특별하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는 미완의 청춘을 위한 충고 속에 작가의 진심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탁상시계', '밧줄', '기차'를 통해 진심을 전하여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충격을 준다.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게 뭐지?" 라고 자책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탁상시계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 바란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 우리는 마치 데드라인을 코앞에 둔 기차마냥 마음이 조급해진다. 김난도는 탁상시계를 이용하여 우리 삶의 시간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했다. 24세, 청춘의 당신이 아직까지 이뤄 놓은 것이 없어 안타까워 할 때 당신의 시계는 아직 아침 7시 12분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며 격려해 준다. 이루지 못했음에 아쉬워 말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때임을 기억하도록 자극했다. 그의 글은 안도와 용기 그리고 의지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



그렇다. 스물넷이 고작
아침 7시 12분이다.
잠을 막 나서려는 순간이다.

"그렇다. 스물넷이 고작 아침 7시 12분이다. 잠을 막 나서려는 순간이다." 19쪽

매사를 격려하기에 세상은 그리 녹초치 않다. 당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장벽에 몇 번이고 부딪혀 지쳐있다면 김난도의 '밧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밧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대게 하늘로 향하는 줄 끝을 바라본다. 그러다 지치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고 줄에 매달리며 힘을 소진하게 된다. 그게 전부다. 밧줄을 잡은 동안 시야와 생각이 좁아진 것이다.

"포기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니다. 실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 있게 줄을 놓아라.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날개를 펼쳐라." 101쪽

인간은 아는 만큼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음도 알고 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뜻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있는 그대에게 작가는 우선 그 기차를 올라 타 보자고 말한다. 인생에 있어 출발선은 매우 중요하지만, 좋은 출발선에 위치하기 위해 아직도 출발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아둔한 준비가 아닐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첫 직장이 아니라 마지막 직장이다. 첫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지려고 하지 말라. 마지막 누가 웃을지 보자며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297쪽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조언은 두 개의 전제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과 조언자의 경험이다. 경험을 들려주는 행위에는 선배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대만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길 바라는 진심이 담겨있다. 김난도는 마음과 경험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일화 중에는 본인이 소비자학과 교수가 되어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법학에서 행정학으로, 고시에서 공부로 전향한 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행정학에서 소비자학으로 전향한 것 또한 인생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었음도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저자는 사람의 진로란 '남이 좋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지혜로운 경험을 나눠준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집필 당시 고3 막바지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에필로그인데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당부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수가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노인이 젊은이에게 충고하듯 율조리는 자기 반성의 진한 아쉬움이기도 하다. 아들이 너무 나약하지 않고 현명하게 그 시간을 보내기 바라는 아버지의 당부와 아들을 보면서 되살아난 스무살 자신에 대한 연민을 통해 독자에게 밝고 찬란한 청춘의 이면에는 심연 또한 존재함을 각성시켜 주고 있다.

사회는 선택의 외줄타기를 하는 곳이다. 내 옆을 지나치려는 기회를 잡기 위해 안목을 높으려면 자기성찰을 통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막연함에 대한 고민 작업이다. 하지만 막연함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이에 청춘은 행동하기를 주저한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독자를 위로하는 저자는 동시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고양이의 대사를 인용하여 행동하기를 격려한다.

"If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just go." 317쪽

김난도는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득해야 하는, 흔히 말해 내공이 쌓여야 알 수 있는 것들임을 저자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또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가슴으로 청춘을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 인생에 있어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마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절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청춘의 그대는 지금 그 시작을 머뭇거리고 막연한 가능성에 시야의 초점을 잃는다. 청춘, 시작 그리고 가능성……. 이제는 알 것 같다. 청춘은 아름답기에 아픈 것이다.

이렇게 읽었다

야전(夜戰)과 영원(永遠)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을 읽고

글 | 문화지원팀 이해정

오해하기 쉬운 제목이다. 나 역시 과격한 반(反)종교주의 책인 줄 알았다. 흠짓 보고 지나치지 않았던 이유는 책에 대한 여러 호평과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의 아즈마 히로키의 뒤를 잇는다는 등의 지인이 소개 때문이었다. 당대성과 국지성을 진 옆 나라의 젊은 사상가가 궁금했다. 깔끔한 표지에도 혹했다.

그가 좋아한다는 시인 파울 첼란의 「빛의 강박」속 시구 인용이라는 제목이 어떤 맥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눈길을 뺀 제목 아래, 책 내용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책과 혁명에 관한 다섯 밤의 기록'이란 부제가 꽤 조화롭다. 첫째 밤, '문학의 승리'에서는 읽고 쓰다는 행위의 광기와 전복성을 말한다. 둘째 밤, '루터, 문학자이기에 혁명가', 셋째 밤, '읽어라, 어머니인 문맹의 고아-무함마드와 하디자의 혁명', 넷째 밤, '우리에게는 보인다-중세 해석자 혁명을 넘어'에서는 역사, 종교, 철학 등이 난삽하게 얽힌다. 다섯째 밤, '그리고 380만 년의 영원'에서는 병든 종말론자들을 나무란다. 다소 지루했던 중간 다리를 건너뛰고 시작과 끝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자.



첫째 밤에서 지은이는 강박적인 정보의 홍수에 거부감을 가지고 거의 모든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 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비평가와 한 가지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전문가를 비웃는다. "방어 기제를 가동시키고, 따라서 기묘한 무료함이나 난해함, 기분 나쁜 느낌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것은 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까지 이른다. 나도 이른바 소통의 혁신적인 도구라고 불리는 온갖 첨단 기기들과 그를 통해 쏟아지는 자투리 정보의 효용에 의구심을 품는 선까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명백한 독서의 신비화이자 이상화이다. 나 역시 책을 좋아하고 그 언저리에서 일하며 몇몇 책의 영향으로 삶의 행로가 달라진 경험도 있다. 지은이의 책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게 분명한, 이 배타적인 열정을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지 않은 독자를 오타쿠로 치환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에 이런 근본주의, 엄숙주의의 쓸모는 어디에 있을까? 글을 읽고 쓰는 아름답고 좁은 길만을 비추고 나머지는 안이한 착취일 뿐이라는 과격한 주장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수많은 이유와 형태가 있고 그 각각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책 애호가으로서 당부이다. 그러니 무엇이든 붙들고 읽자, 아니 제발 읽어달라는 것이 도서관 사서로서 바람이다.

다섯째 밤에서 파국과 종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특권적인 시작이나 끝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 역사상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병든 사고의 형태" 라고 꾸짖는다. "도스토옙스키가 작품을 쓰던 러시아의 문맹률이 90%였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최종부는 자비로 40부를 찍어 7부만 지인들에게 보냈다. 문학이 발명된 지 고작 5천년 밖에 되지 않았다. 생물 종의 평균 수명은 400만년이니 20만년 된 호모 사피엔스 앞에는 380만년의 영원이 기다리고 있다." 끝과 패배를 입에 올리기에 인류는 어리고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뜨끔했다. 부딪히고 고민하던 젊은 날이 지나고 적당히 피하고 타협한 지 한참 되었다. 권태로운 눈은 강박스레 아름다움을 좇았다. 다행히 나른하고 그럴싸하게 허무를 노래해주는 예술가들이 충분했다. 지은이는 주저앉은 나의 손을 끌어 다시 파울 첼란을 인용했다. "다양한 상실의 한복판에서 손에 닿는 것으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은 말뿐"이니 이기고 지는 밤 속으로 걸어가라고, 우리 앞에 380만년의 영원이 기다린다고. 그리하여 '나는 비겁하다' 한 줄이면 충분할 이 구차한 감상문의 제목으로 지은이 데뷔작의 그것을 빌려 쓴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

2014년 의정부시 '올해의 책'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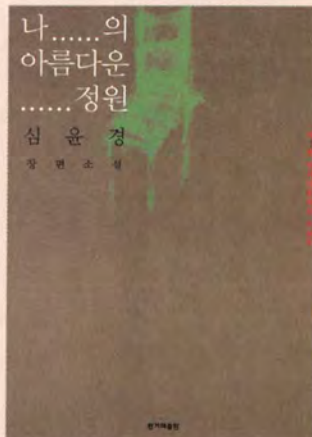
글 | 도서관정책팀 최인환

'책 읽는 도시, 의정부'는 2014년 1월 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2014년 시무식 중, 박웅현 작가의 「여덟 단어」를 '2014년 의정부시 올해의 책'으로 선포한다.

올해의 책은 작년 11월부터 의정부시민들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후보도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민 선호도 조사 및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여덟단어」로 최종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청소년, 독서동아리 등에 "2014년 의정부시 올해의 책"을 전달하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2011



2011년 올해의 책
심윤경 <나의 아름다운 정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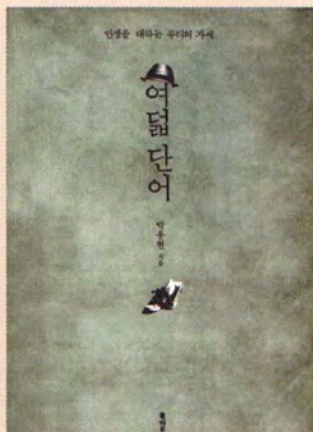
2012년 올해의 책
김병만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2013년 올해의 책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2013

2014년 올해의 책
박웅현 <여덟 단어>



2014

박웅현 작가의 「여덟 단어」는 삶을 사는데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 대해 여덟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풀어 쓴 이야기로, 저자인 박웅현 작가는 「책은 도끼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등의 저서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책을 통해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광고기획자이다. 저자의 신간 도서인 「여덟 단어」가 2014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책과 인문학 공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번째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

통합도서관 & 모바일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글 | 도서관정책팀 강순원

그동안 '책 읽는 도시, 의정부' 만들기 추진을 통해 총 81개의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18개소를 비롯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우선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여 19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지원하였으며, 북카페 25개, 열린문고 19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의정부시 103개 기관의 100만여권의 소장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과, 사립 작은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책 읽는 도시, 의정부'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어 새해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 통합 홈페이지

책 읽는 도시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의정부시 관내 103여개 기관 소장 자료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book.uilib.net>



「사립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의정부시 16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대출 현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l.uilib.net>





모바일도서관

이제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도서 대출 정보 확인, 도서예약, 상호대차서비스 신청, 전자책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self 대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증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으셔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OK!

모바일 회원증 메뉴 터치



모바일 회원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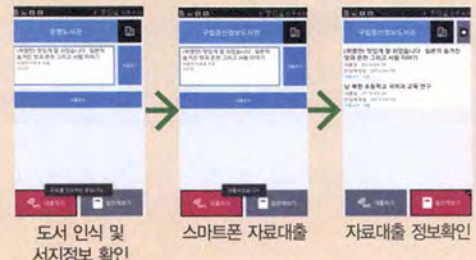
스마트폰에 내재된 NFC칩으로 도서를 본인 스스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에 부착된 스마트ZONE 스티커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시면 도서 정보를 인식한 후 대출됩니다. 이제 데스크 방문 없이 내 손 안에서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하세요. 스마트한 서비스!

>스마트폰 자가대출 방법



1.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
2. 서가에서 해당도서 선택
3. 스마트폰으로 도서 인식
4. 선택한 도서의 서지정보 확인
5. 자료 대출
6. 대출 정보 확인

>자료대출 상세과정



도서 인식 및 서지정보 확인

스마트폰 자료대출

자료대출 정보확인

책 읽는 도시 의정부

가능3동 작은도서관이 달라졌어요!

글 | 도서관정책팀 김윤선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가능3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10월 21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975년 건축된 가능3동 주민센터는 노후된 건물의 외관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여 예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바닥은 온돌마루로 바꾸었고, 통제실 느낌의 철문은 투명한 유리문으로, 네모반듯해서 심심했던 책상을 알록달록 예쁜 모양 책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느낌 아니까~~

한 번 보실까요?

이랬던 도서관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데스크며, 마루며 정말 예쁘고 깔끔하게, 밝게 변신했습니다.
 근처의 가능2, 3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꼭 한 번 가셔서 구경해보세요.

가능3동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주 소 : 호국로 1135번길 15 가능3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 828-4956



여기서 잠깐!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서 우리 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책들을 상호대차를 통해 모두 빌려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시지요? 아직 모르신다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은 없어도 되고요, 지금 당장 가능3동 도서관으로 방문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문화 강좌



2014년 의정부 과학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4. 1. 6.(월) 9:00 ~ 정원 마감 시 까지

☞ 참여대상

대상	수업일	연령	장소
초2학년 (20명)	2014. 1. 13(월) ~ 1.16(목)	05년 1월생~06년 2월생	지하1층 배움터실
초3학년 (20명)	2014. 1. 20(일) ~ 1. 23(목)	04년 1월생~05년 2월생	배움터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어린이가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주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의정부 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 → 어린이 이용으로 하단 로그인 → 문화강좌 등록하기 (http://edu.uilib.net) 신청순

☞ 운영 강좌 내용 ☑ 강좌내용은 강사 및 도서권, 기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학년 일정

일정	1. 13 (월)	1. 14 (화)	1. 15 (수)	1. 16 (목)
1교시 (9:10~10:00)	친구이름 짓기	너랑 똑같지 않아	미래처럼 열어보기	내 친구 소개
2교시 (10:10~11:00)	스물한 내 책	같은 피카소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 세찬 + 에밀
3교시 (11:10~12:00)	친구 얼굴 찾고 만들기	• 비스키아 에코백 만들기	• 미래의 나 찾고 만들기	수료식

☞ 3학년 일정

일정	1. 20 (일)	1. 21 (화)	1. 22 (수)	1. 23 (목)
1교시 (9:10~10:00)	친구이름 짓기	미래처럼 열어보기	너랑 똑같지 않아	내 친구 소개
2교시 (10:10~11:00)	달걀 꾸미기(학교 이공치곤)	하늘로 뛰어올라 무지개 꿈	같은 피카소	• 세찬 + 에밀
3교시 (11:10~12:00)	• 도어놀이	• 비행기 접이책	• 비스키아 에코백 만들기	수료식

☞ 참여비 및 재료비 없는 무료 강좌입니다. (개인준비물 : 필기구)

☞ 문의사항 : 과학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828-8663

☞ 인터넷 접수 방법 ☞

- 인터넷접수를 위해서 먼저 의정부시지식정보센터의 회원가입여야 하며, 부모님, 어머니로는 신청할 수 없고 자녀분의 아이디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실제 수강할 수강생과 아이디로만 신청가능)
- 접수일이라도 오름 유치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가능연령이 확정되므로 그 전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 홈페이지에 공지된 마감시간에 마감되어 있는 "신청가능"인정 버튼 클릭해서 신청해서 홈페이지에 등록까지 기다려 줍니다.

과학도서관

의정부과학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프로그램인 "2014 겨울독서교실"을 2014년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즐거움 학교생활"의 주제로 학교, 선생님, 친구사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친구 얼굴 팝업 만들기>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에밀과 즐라> <바스키아 에코백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2014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문화마당 홈페이지(http://edu.uilib.net)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수강료 및 재료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일정과 수업내용은 홈페이지(www.uilib.net)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문의는 ☎828-8663로 전화하면 된다.

2014년 의정부정보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안내
북아트로 만나는 나의 진로이야기

- 모집기간 : 2014. 1. 2.(목) 오전 9시 ~ 1. 10.(금) 오후 6시
- 참여대상 : 도서관 회원 중 초등학교 4학년 25명 (2003년 1월생 ~ 2004년 2월생)
- 신청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http://edu.uilib.net>)
(어린이가 홈페이지 회원이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해주세요!)
- 운영장소 : 정보도서관 지하 1층 예술생활반
- 참가비 및 재료비 : 무료 공개강좌 (개인준비물 : 짜인펜, 풀, 가위, 필기도구)
- 일 정

날 짜	1. 14. (화)	1. 15. (수)	1. 16. (목)	1. 17. (금)
1교시 09:10~09:50	입교식 및 도서관 소개 -My Story- - 나만의 다이아몬드 만들기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 % 나는 우의 마음 주지않	<교과목과 직업> % 예술아, 학교까지 -- 내의 직업일 잘야우고	<꿈꾸는 나> % 년 꿈이 뭐니? - 꿈을 이루는 사람들 - 난 꿈이 있어 - 꿈꿔 직 만들기
2교시 10:00~10:50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 할말가가 되고 싶다고? - 할말가답에 대해 - 동경할 사람하기 - 관심, 흥미, 생각을 알아보고 - 책으로 만들기	- 비싼카드를 알아보는 나의 가치관 - 우리 마음 주지않고 - 생각나누기 - 아름다운 용감하기 - 사회적기	꿈꾸고 - 다양한 걸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 알아보기	
3교시 11:00~11:50		- 보물 책 만들기		실존조시 및 수료식 (기념촬영)

* 문화마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 할지 (<http://edu.uilib.net>) 보
- 인터넷접수를 위해서 먼저 의정부지식정보센터에 회원이어야 하며, 부모님 아이디로는 신청할 수 없고, 자녀분의 아이디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일이라도 오전 9시가 되어야 신청가능하며 신청확적으로 그 전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 페이지의 경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9시가 되면, '새로그침'(F5)버튼을 클릭하면서 신청버튼이 활성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보도서관

의정부정보도서관은 2014년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지하1층 예술생활반에서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독서교실은 "북아트로 만나는 나의 진로이야기" 라는 주제로 <My Story>,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 <교과목과 직업>, <꿈꾸는 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독서교실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2014년 1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문화마당 홈페이지 (<http://edu.uilib.net>)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수강료 및 재료비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도서관 홈페이지(<http://www.uilib.net>)를 참고하거나 정보도서관 독서교실 담당자 ☎828-4848에게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도서관

의정부어린이도서관은 2014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3학년은 오전 9시~12시, 4학년은 오후 1시~4시로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떠나자! 책 속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어느 나라 책일까?>, <한국&세계 닮은꼴 찾기>, <세계의 衣, 食, 住>, <세계 4대문명>, <지구촌 사람들의 별난 음식 이야기>, <나는야 지리박사> 등 다양한 독후활동이 진행된다. 이번 독서교실을 통해 세계 문화를 간접 경험하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1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문화마당 홈페이지(<http://edu.uilib.net>)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수강료 및 재료비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http://ucl.uilib.net/child>)를 참고하거나 ☎828-8604로 문의하면 된다.



2014년 어린이도서관 겨울독서교실 떠나자! 책 속 세계여행!



- 모집기간 : 2014. 1. 6. (월) 오전9시부터 정원 마감 시 까지(학년별 15명)
- 참여대상 : 초등학교 3학년 (04년 1월 ~ 05년 2월), 4학년 (03년 1월 ~ 04년 2월)
- 참여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어린이가 홈페이지회원이어야 합니다!)
- 운영장소 : 어린이도서관 1층 글고운
- 참여비 및 재료비가 없는 무료강좌입니다. (개인준비물 : 풀, 달, 가위, 필기구)
- 운영일정 : 2014.01.13(월) ~ 2014.01.16(목)
3학년 (오전 9시~12시), 4학년 (오후 1시~4시)

3학년 일정	1.13 (월)	1.14 (화)	1.15 (수)	1.16 (목)
1교시 (9:10~10:00)	도서관 소개 & 모두 인사를 해요!	어느 나라 책일까?	한국 & 세계 닮은꼴 찾기	세계 4대문명
2교시 (10:10~11:00)	세계의 衣(의)	세계의 食(식)	세계의 住(주)	
3교시 (11:10~12:00)	: 나라별 체육 문화	: 나라별 대표음식	: 나라별 주거문화	실존조시 & 수료식
4학년 일정	1.13 (월)	1.14 (화)	1.15 (수)	1.16 (목)
1교시 (08:10~2:00)	도서관 소개 & 모두 인사를 해요!	어느 나라 책일까?	한국 & 세계 닮은꼴 찾기	나는야 지리박사
2교시 (02:10~3:00)	크기의 용으로	지구촌 사람들의	세계의 자연환경	
3교시 (03:10~4:00)	용어를 만든 나라?	별난 음식 이야기?		실존조시 & 수료식

* 인터넷 (문화마당) 접수 절차 *
1. 의정부지식정보센터홈페이지 로그인(실제 수강할 수강생 본인의 지식정보센터 아이디로 로그인)
2. 문화마당 홈페이지(<http://edu.uilib.net>)에서 2014년 어린이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접수
- 접수일이라도 오전 9시가 되어야 신청가능하며 신청확적으로 그 전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 페이지의 경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9시가 되면 '새로그침'(F5)버튼을 클릭하면서 신청버튼이 활성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문의사항 :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828-8604



핀란드 공공도서관을 탐하다 ②

글 | 도서관정책팀 박영애

투르쿠 센트럴 도서관

매번 놀라움을 안겨주는 핀란드의 여느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투르쿠중앙도서관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다. 동유럽 도서관에서 느낄 수 있었던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도서관과는 달리 투르쿠 도서관은 과거와 현대가 절묘하게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분위기의 도서관이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오른쪽에 우리나라 문화강좌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마침 그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많았다. 중앙 오른쪽편에 대출 데스크가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고 있었다. 대출 데스크와 약간 떨어진 곳에 레퍼런스 데스크가 있다.

1층 오른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그야말로 동화 처럼 펼쳐져 있다. 구석진 공간 한 부분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수 있도록 상상력이 가득 담긴 그림이 그려진 커튼으로 공간을 분리해놓았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핀란드의 다른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새로움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서가 끝부분 한 칸을 동화책을 전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있는 것이다.

1층에서 2층으로 중앙 계단을 올라가면 또 하나의 놀라운 공간을 만나게 된다. 또한 현대식 건물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옛날 건물로 도서관이 이어진다. 오래된 도서관 건물이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태어난 듯하다. 햇볕이 귀중한 나라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건축물, 햇볕을 충분히 이용한 건축형태, 핀란드 도서관의 특성이 아닐까싶다.

도서관에 대한 철학, 개념, 그리고 국가적 정책이 빚어낸 역사적 산물. 어떤 단어 또는 글로 표현한다 해도 직접 눈으로 보는 걸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선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도서관 시설, 왠지 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핀란드 도서관은 그야말로 명품 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더불어 눈으로 본걸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참여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도서관에서의 최신 기술도입과 사서들의 관심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전시장에서 만난 관련 산업 등을 통하여 도서관계의 역동적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대회 사흘째 대회장에서 떨어진 헬싱키 시내의 Wanha Satama(Old Harbour)에서 세계도서관대회 행사 중의 하나인 문화의 밤(Cultural Evening) 행사가 개최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도서관 관계자들이 저녁 만찬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회장 코너에는 헬싱키 도서관의 역사를 담은 영상물이 설치·상영되어 헬싱키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트럼펫 연주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악단들이 대회장을 행진하며 흥겨운 음악을 들려주어 참석자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몇몇 해외 선진 도서관들을 다녀왔지만 핀란드 도서관은 그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도서관을 보여주었다. 핀란드 공공도서관에서 우리나라 도서관 건축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도서관 건축물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핀란드 도서관은 오고 싶게 만들고 또한 머무르고 싶게 만든다. 도서관 외관보다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내부를 보면서 웬지 도서관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난 느낌이다. 이러한 도서관들이 핀란드 각처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핀란드 사람들이 사서인 나에게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디자인의 나라, 교육 강국, 세계 최고의 공공도서관을 자랑하는 핀란드

핀란드에 대한 수식어들이다. 핀란드라는 나라에 이 수식어들이 왜 붙었는지를 책속에서가 아닌 실제 핀란드를 만나고서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여행은 역시 온몸으로 세상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핀란드라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마도 당분간은 핀란드 공공도서관 예찬론자가 되지 않을까?



달의너

스물의 책



첫 쪽지에서 말씀드렸듯 소식지 20호 기념으로, 달는 글 역시 20 관련입니다. 도서관 직원들에게 스물 무렵 읽었거나, 읽은 시기 상관없이 현재 스물을 살고 있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한 권을 골라달라 청했습니다. 요즘 응답하라고들 아우성인데 그 한 시절 때문일테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지음, 문학수첩 펴냄)

흥미진진한 판타지의 세계.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조바심내며 읽었던 책이다. 10년도 훌쩍 넘은 그때 그 시절, 집과 학교를 오가던 지하철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기억이 난다. 픽션이지만, 픽션 그 자체의 훌륭함을 지닌 책. 탄탄한 구성과 내용은 읽는 이의 눈과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잘 표현해낸 영화도 이 책을 더욱 기억나게 해준다.

- 도서관정책팀 강순원



'그것은 꿈이었을까?' (은희경 지음, 문학동네 펴냄)

대학교 진학 때문에 집을 떠나 부모님, 사춘기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과 헤어져 상실감에 허덕이던 저를 슬픔과 우울의 바닥까지 당겨준 책입니다. 저의 경우 감정이 바닥을 치면 바운스되어 다시 회복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머세요? 뭔가 찝찝하게 우울하신 당신께 추천합니다. 비틀즈를 좋아하는 당신께도 추천합니다.

- 도서관정책팀 김윤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나쓰메 소세키 지음, 현암사 펴냄)

이 책은 고양이의 시선으로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하면 1인칭 화자가 고양이이다. 고양이가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인간(주인)과 주변 사람들을 서술하고 있다. 심각하게 읽을 책은 아니고, 편하게 즐기면서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풋~하고 웃으며 고양이의 생각(?)에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유머러스한 책이다. 다양한 인간상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학생 때 친구가 추천해줘서 읽은 책이다. 두꺼운 전공서에 허덕였던 대학생활 중에 가장 재미있게, 가장 빨리 읽었던 책이 아닌가 싶다.

- 수서열람팀 이지선

'인생론' (세네카 지음, 동서문화사 펴냄)

'천국의 열쇠' (A.J. 크로닌 지음, 흥신문화사 펴냄)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무단휴학을 했다. 행복한 성년식을 하기도 전에, 갓 스무살이 된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아팠다. 처음엔 작은 물음에서 시작된 일들이, 어느 순간 삶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목을 옥죄어왔다. 그리고 내 안의 상자 안으로 조용히 걸어들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거닐었다. 서걱서걱 모래들이 씹히던 그때, 나에게 시간의 의미와 다시 바다를 보게 해준 두 권의 책이 있다. 15년의 세월을 건너와 이제 어떤 의미로 읽힐지는 알 수 없지만, 삶의 수많은 상자들에 대해, 그 상자의 뚜껑을 여는 용기와 닫는 힘에 대해, 지리 멀렬한 듯 평온한 일상의 지속성에 대해, 다시 푸른 바다를 보는 것에 대해, 스무살의 내게 말을 건네왔던, 소중한 길동무였다고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다.

- 운영관리팀 이소영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전옥표 지음, 중앙북스 펴냄)

저자는 젊음은 두려움이자 설렘이라 한다. 20대! 두렵고, 불안하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이 책 속의 어느 한 구절이 잠시나마 위안이 되길 바래본다.

- 정보도서관팀 이진희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 밀러 지음, 민음사 펴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고전이고, 대학교 2학년 때 현대영미회곡 강의 교재로 접했다. 여러모로 좋아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자본주의의 인간 소외와 계급 같은 가족 문제가 너무나 생생하여, 매주 강의 후 단골 술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다. '위대한 개츠비'와 더불어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걸어가다 바스라진 개인을 가장 아프게 그린 작품이 아닐까?

- 문화지원팀 이혜정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지음, 오픈하우스 펴냄)

작가가 딸 위녕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경험과 사색의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있다. 이제 수능이라는 커다란 첫 벽을 넘은 스무살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벽을 넘어가는데 있어 위로와 응원이 되어줄 책.

- 수서열람팀 정미혜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www.uilib.net